



# Global Goings-on

## 영국

### 의사협회, 처방료 폐지 촉구 (Doctors urge government to abolish prescription charges)

영국 의사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에 이어 잉글랜드 정부도 처방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60세 이상 및 16세 미만환자와 전일제 교육을 받는 16~18세 학생,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 임신한 여성,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요하는 환자(당뇨병타입 1, 부갑상선 기능저하, 간질 등)는 약의 종류별로 7.10 파운드씩 부과되는 처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부터 암환자는 암 의약품은 물론 암과 무관한 약에 대해서도 처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잉글랜드 정부는 처방료 면제 확대를 위한 정책 재검토를 실시 중이나, 영국 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방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면제 대상만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혜택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라고 서술하며 현재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 천식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처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처방약의 11%만이 처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보건부 장관은 "현재 잉글랜드 내 처방 약품의 89%는 처방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나머지 11%에 대한 수입은(2009/10 기준 437백만 파운드) NHS의 안정성과 빠른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스템을 보다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 암 환자와 다른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The Guardian 2009년 3월 5일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society/2009/mar/05/prescription-charges-england>)

## 세계보건기구

###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촉구 (Health impact of climate change needs attention)

지구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와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Climate Change, Global Risks, Challenges and Decisions conference』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주요 보건 문제를 제시하였다.

1. 기후 변화는 보건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보건 수준은

낮아진다.

- WHO와 Intem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의 자료에 의하면, 식량, 물, 물리적 안전성등과 관련된 지구의 수많은 자연 작용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위해 요인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인류의 시간 척도를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극심한 날씨변화부터, 전염병의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와 수자원의 염류화 등이 있다.

- 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150,000 명의 저소득 국가 국민들이 흉작, 영양실조, 설사병, 말라리아, 홍수와 같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보건 문제들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85%는 아동이다.

2.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 탄소량이 감소할수록, 보건 수준은 향상된다.

- 환경 조건의 개선은 전 세계 질병부담(Global Disease burden)을 2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질병부담의 많은 부분은 에너지 소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기오염(매년 800,000 사망), 교통사고(매년 120 만명 사망), 신체 비활동성(매년 190만명 사망), 실

내공기오염(매년 140 만명 사망) 등의 주요 공중보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시켜 부수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불공평하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기후와 관련된 질병 및 조기 사망에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아동, 여성 및 노인을 포함하여 가난하고, 지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산간 지역, 물 부족 지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개발도상국의 해안 지역(특히 아시아의 삼각주 지역의 큰 도시 집적)의 인구가 가난하고 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한 WHO의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위에서 언급한 보건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 제고
- 교통, 주거, 에너지, 농업 등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보건문제와 관련된 주장 제기
- 과학적 근거 지원
- 극심한 날씨변화로 인한 비상상황 및 해수면 상승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위협 요소들의 해결을 위해 보건 시스템을 강화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2009년 3월 11일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news/notes/2009/climate\\_change\\_20090311/en/index.html](http://www.who.int/mediacentre/news/notes/2009/climate_change_20090311/en/index.html))

## 프랑스

### 음주연령 18세로 상향 조정 (France moves to raise drinking age to 18)

프랑스 하원은 지난 월요일,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7,500~9,600 프랑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하원은 또한 청소년들의 주요 술 구입처인 주유소에서 술을 밤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수정안은 현재 국회와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원은 또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담배 규제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법정 음주 연령은 술의 종류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술집에서 맥주와 와인을 주문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음

주 연령이 16세인 곳이 적지 않다. 유럽은 법정 음주 연령이 21세인 미국에 비해 보다 관대한 기준을 채택해 왔다.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들은 음주 허용 연령을 16~18세 사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대한 음주 기준이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 문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French Monitoring Center on Drugs and Addiction이 프랑스의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비율이 8%에서 13%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남자 청소년 5명 중 1명,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적어도 한달에 10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개정안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로 음주연령이 상향될 경우 와인 산업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인터넷에 알코올음료 광고를 허용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음주 연령의 상향 조정이 십대 음주 문제의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술이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년 3월 12일  
(원문링크: <http://www.ihf.com/articles/2009/03/12/europe/booze.php>)